

대학생 주거형태 결정요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하람¹⁾ · 변수용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 자취나 하숙, 혹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와 부모와 함께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형태가 대학생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4~5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전 주거지역, 대학교소재지와 고등학교소재지의 일치여부, 부모와 같이한 시간, 이전 거주형태, 현재 동아리 활동여부 등이 대학생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형태 결정에 있어서의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를 경향점수 매칭으로 제거한 후 주거형태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통해 분석하였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나 하숙, 혹은 기숙사에 거주할 때 BMI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대학교 진학 후 부모의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주거의 경우 비만과 이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율적인 대학생들과 독립적인 주거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기숙사 거주는 경향점수 매칭 후에는 비만 관리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학기관의 식생활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 또한 요구되고 있다.

I. 서론

2014년 수도권 거주 대학생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 가운데 약 30~40%가 부모와 떨어져 자취나 하숙, 기숙사 등과 같은 불안정 주거로 살고 있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5). 대학생들의 주거형태 차이는 학교 수업과 관련된 교과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거형태는 부모와 자녀 간 일상생활의 분리 혹은 공유를 의미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부모의 지원 및 관여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1)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센터 선임연구원

2)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부교수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팽창의 결과에 따른 대학진학률과 취업연령의 상승이라는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늦추었고 이에 따라 부모의 지원 및 관여가 대학생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주거형태에 따라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주거형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거형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도를 보여주는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주거형태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선택적 편의를 고려한 경향점수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질량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세부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거주형태는 부모와 같이 살며 학교에 통학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학한 대학교가 부모와 거주하는 집과 멀 경우 (예: 지방에 거주하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 자취와 기숙사와 같은 불안정 주거가 불가피하다. 또한 학교생활 참여,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주거형태에 따라 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경우, 대학생들은 대개 의식주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취와 기숙사와 같은 불안정 주거를 택하는 학생들은 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식생활과 수면패턴,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제한된 지역에서의 편의표집에 의존하거나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갖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고, 경향점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주거형태의 차이가 건강상태와 비만도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취나 기숙사와 같은 불안정 주거를 택할 경우 건강상태, 비만도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대학생의 주거형태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는 대학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은영, 2014).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유입되는 청년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는 기숙사의 경우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취나 하숙을 알아봐야 하는 형편이다.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64%가 월세 자취(41%) 혹은 하숙(23%)의 형태의 불안정 주거를 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재홍, 2012). 자취나 하숙의 경우에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거주 혹은 부모와 같이 살며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대학생 본인이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생의 주거형태는 학업과 관련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건강을 비롯한 복지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2. 주거형태와 건강

선행연구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한 지역 혹은 한 대학에 국한된 제한된 형태의 연구물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복임 외 (2012)는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지방의 한 대학의 표본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흡연률, 음주량 등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식습관은 반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를 비롯하여 백경신(2003), 김승연 외(2013), 오난숙 외 (2011)은 주거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지역에 편중된 표본을 통한 제한적인 실증 분석을 시행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형태와는 달리 불안정 주거의 경우 건강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학생은 생애 주기 중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과는 달리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해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김양분 외, 2013). 그러나 대학 초기의 불안정적인 주거형태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지원과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거형태의 영향 분석을 통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표본을 통해서 검증하고 정책적인 관심을 모아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4~5차년도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코호트 학생들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분석대상인 중학교 3학년 코호트는 휴학, 조기졸업, 퇴학, 취업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5차년도인 2008년도에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로서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 신입생 집단 중 가장 최근 자료를 탐색하고 주거형태와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5차년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총 1,6801명으로 전체 코호트의 78.04%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거형태와 건강상태에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2008년에 대학에 진학한 대학신입생 1,246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수 설명

대학생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경향점수 매칭을 통해 선택적 편의를 고려하여 주거형태와 건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 이루어졌다.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1) 주거형태

대학생의 주거형태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한 2008년 당시의 주거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또는 보호자)와 같이 집에 거주할 경우는 0,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자취, 하숙 또는 기숙사에 사는 경우를 1로 가정하는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2) 주거형태 설명변수

대학생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부모의 학력, 부모의 거주지역, 대학소재지와 고등학교소재지의 일치여부,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 같이 한 시간, 형제자매 여부, 이전 주거형태, 이전 학업성취도, 현재 동아리 활동 유무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은 여성의 경우 1, 남성의 경우 0인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

해 로그 변환 후 분석에 투입되었고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더 높은 학력을 교육 연한의 연속변수 형태로 변환 후 분석에 포함시켰다.

대학교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지역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4년제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거나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읍면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진학한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대학 근처로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와 떨어져 불안정 주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부모의 거주지역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서울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주거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학소재지와 고등학교소재지의 일치 여부를 통해 2007년까지의 주요 거주지역과 대학 입학 후 거주지역 간의 차이가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지 분석하였다. 일치할 경우 0, 일치하지 않을 경우 1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가정생활이 대학 입학 후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 같이 한 시간, 형제자매 여부를 분석에서 고려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의 경우 “현재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합니까? [F4Y08053]”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답한 5점 척도의 학생들의 응답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부모와 같이 한 시간은 부모와의 유대를 의미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와 함께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외식[F3S02047], 영화, 연극, 뮤지컬 등 [F3S02048],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F3S02049], 여행, 등산, 낚시 등 [F3S02050], 운동 [F3S02051] 5가지 범주에 대해 학생에 질문하였다. 응답은 ‘전혀 하지 않음(1점)~‘일주일에 1~2번’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5개 응답을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연속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형제자매 여부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 혼자일 경우 0인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이외 고려해야할 변수로 이전 주거형태와 이전 학업성취도를 2007년 4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고 현재 동아리 활동 여부는 대학 내 활동과 주거형태와의 관계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 5차년도 자료를 통해 예(1)/아니오(0)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건강상태

- 1)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로 가장 측정하기 쉽고 주관적인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건강척도이다 (Mirowsky & Ross, 2003). 이 변수는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F4Y13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5점 척도 (매우 허약하다~매우 건강하다)의 형태이다. 분석에서는 서열변수 (ordinal variable)로 정의하여 투입되었다.
- 2)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신체질량지수는 비만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건강척도로 신장과 체중을 고려하여 비만과 관련 만성 질환 (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Mirowsky & Ross, 2003).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는 매년 응답자의 신장과 체중을 조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BMI를 측정하였다. WHO에서는 동아시아권에서 정상 범위의 BMI를 18.5~23.0kg/m²으로 규정하고 있다 (WHO, 2004).

4) 건강상태 설명변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주거형태, 기숙사 여부,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어머니 학력, 부모의 거주지역, 부모와 같이 한 시간, 동거인 유무, 생활비 지원정도, 이전 학업성취도, 휴학 여부, 음주량, 흡연여부, 이전 건강상태 (이전 BMI)가 고려되었다.

주거형태는 0, 1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비안정 주거의 경우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었다. 다만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경우는 자취와 하숙과 같은 다른 비안정 주거 형태와는 달리 대학교에서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미변수로 분석에서 고려되었다.

주거형태를 설명하는 변수 중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부모의 거주지역, 부모와 같이 한 시간, 이전 학업성취도가 고려되었고 부모의 학력 중 어머니의 학력이 식생활 및 건강관리에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분석에 투입되었다.

추가적인 통제변수로는 동거인 유무 (예=1), 생활비 지원 정도(0~100%), 휴학여부 (예=1), 음주량(5점 척도), 흡연여부(예=1), 이전 건강상태, (이전 BMI)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표 1> 변수 설명과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M (or %)	SD
주거형태	비안정 주거=1, 부모와 동거=0	0.30	0.46
기숙사 여부	기숙사에 거주=1, 자취 또는 하숙=0	0.18	0.3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허약~매우 건강, 5점 척도	3.81	0.81
신체질량지수	BMI=kg/m ²	15.06	38.27
성별	여성=1	0.51	0.50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	5.64	0.69
부모의 학력	부모 중 최고 학력에 대한 교육연한 변환값	12.63	2.81
어머니 학력	어머니 학력에 대한 교육연한 변환값	11.63	2.77
부모 거주지역	서울=1	0.16	0.36
	광역시=1	0.30	0.46
	중소도시=1	0.35	0.48
	읍면지역=1	0.20	0.40
대학 소재지 일치	고등학교와 불일치=1, 일치=0	0.51	0.50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3.72	0.93
부모와 같이 한 시간	부모와 함께한 활동 5가지에 대한 요인점수	0.00	1.00
형제자매 여부	예=1	0.92	0.28
이전 주거형태	부모와 동거=1	0.90	0.31
	자취 또는 하숙=1	0.01	0.12
	기숙사=1	0.07	0.26
	기타 형태=1	0.02	0.13

<표 계속>

변수명	변수설명	M (or %)	SD
이전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등급(1~9, 역코딩)	5.94	1.57
동아리 활동유무	예=1	0.34	0.47
동거인 유무	예=1	0.26	0.44
생활비 지원 정도	0~100%	96.76	14.91
휴학여부	예=1	0.07	0.26
음주량	음주량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3.18	1.09
흡연여부	예=1	0.15	0.36
이전 건강상태	2007년 주관적 건강상태	3.71	0.87
이전 BMI	2007년 신체질량지수	21.36	3.08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형태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주거형태를 부모와 동거(0)와 비안정주거(1)의 이항변수로 측정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주거형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형태를 선택하게 된 선택적 편의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적 편의를 고려하고 부모와 동거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순수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향점수 매칭 방법이 사용되었다. 경향점수를 활용한 매칭 모형은 관찰된 특성을 토대로 특수한 상황(혹은 처치)에 속할 경향점수를 구하고 이 경향점수와 비슷하게 매칭되는 특수한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혹은 통제상황)를 통해 선택 편의를 제거하여 특수상황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Deheja & Wahba, 2002; Morgan & Winship, 2007; Rosenbaum & Rubin, 1983, 1984). 즉, 경향점수가 매칭되는 특수상황과 통제상황만을 비교하여 처치효과 이외의 다른 결정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특수한 상황은 주거형태 중 비안정주거를 택하는 경우(처치 집단)를 의미하며 반대 상황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통제 집단)를 의미하게 된다. 경향점수는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분석방법을 통한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경향점수 매칭이 이루어진다. 경향점수를 매칭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e.g., Mahalanobis metric matching, nearest neighbor matching, caliper matching, optimal matching)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STATA 13.0 통계 패키지의 psmatch2 명령어를 활용하여 로짓모형을 통해 구해진 경향점수의 표준편차 .25의 k-Nearest neighbors caliper matching을 선택하였다 (Rosenbaum and Rubin, 1985).

셋째, 경향점수를 매칭한 후 주거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신체질량지수(BMI)의 경우 OLS 선형회귀분석을 주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주거형태 결정요인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예상되는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은 설명변수의 Log Odds와 Standard Error,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불안정 주거를 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부모와 거주하던 지역 중 서울을 기준으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살 경우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 및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에 살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또한 대학소재지가 기존 살던 곳과 불일치할 경우도 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될 확률을 높였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많았던 경우는 대학 진학 후에도 부모와 같이 집에서 살면서 통학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불안정 주거형태를 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부모와 같이 사는 형태가 아닌 학교 근처에서 불안정 주거를 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거형태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주거형태(비안정주거=1)	Log Odds	S.E.
상수	-5,013***	1.271
성별(여성=1)	-0.090	0.202
월평균소득(log)	-0.137	0.182
부모학력	0.001	0.039
부모거주지역		
서울(=기준)		
광역시	0.475	0.338
중소도시	0.946**	0.316
읍면지역	2.872***	0.368
대학소재지(불일치=1)	2.049***	0.215
가정생활만족도	0.035	0.137
부모와 함께한 시간	-0.285*	0.116
형제자매 여부	0.393	0.472
이전 주거형태		
이전(부모와 동거=기준)		
이전(자취, 하숙)	0.513	0.797
이전(기숙사)	1.267**	0.422
이전(기타 형태)	1.016	0.693
이전 학업성취도	0.144	0.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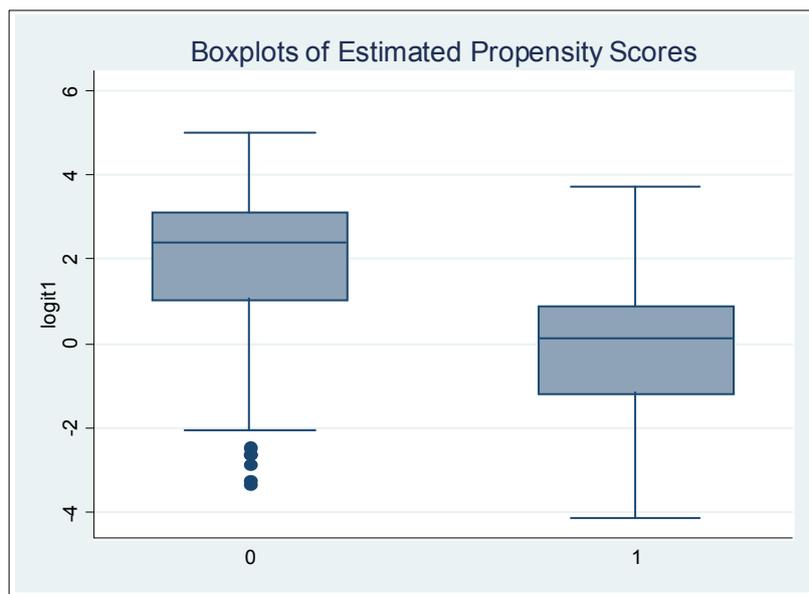
<표 계속>

주거형태(비안정주거=1)	Log Odds	S.E.
동아리활동(예=1)	0.573**	0.205
Pseudo R2		0.280
N		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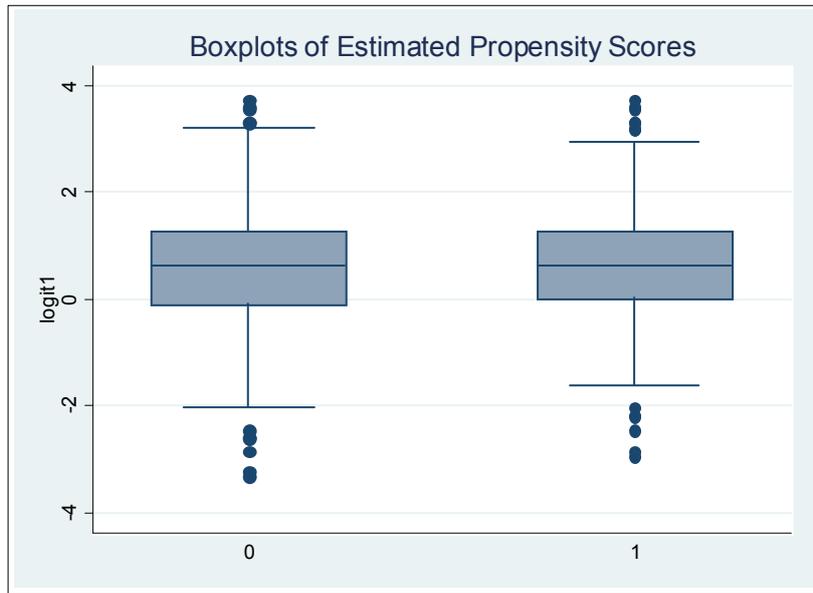
주:***1%,**5%,*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경향점수 매칭

대학생의 주거형태에 대한 탐색적인 로지스틱 분석을 토대로 경향점수를 구하여 특수상황(비안정주거)과 통제상황(부모와 동거)간의 비슷한 경향점수끼리 매칭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추출한 로짓 점수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를 매칭하기 전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취, 하숙, 기숙사 거주 등 불안정 주거형태를 택하는 집단 간의 로짓 점수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성의 차이는 선택적 편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집단 간의 특성이 다르고 그 다른 특성이 결국 주거형태와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경향점수 매칭을 한 후를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보면 경향점수가 비슷한 사례들만 뽑아서 로짓 점수를 비교했을 경우 두 집단 간의 boxplot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두 집단 간의 출신지역(부모 거주지역)이 유의미하게 달랐지만, 경향 점수 매칭에서는 두 집단의 지역에 따른 경향성이 유사한 분포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주거형태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른 선택적 편이를 제거하고 주거형태만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경향점수 매칭 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 따른 부모와 동거(0)와 불안정 주거(1)와의 로짓점수 비교



[그림 2] 경향점수 매칭 후 부모와 동거(0)와 비안정주거(1)와의 로짓점수 비교

3. 주거형태와 건강

경향점수를 매칭한 후 주거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질량지수(BMI)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형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른 설명변수도 성별과 이전 건강상태를 제외하고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경향점수 매칭 후 주거형태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

주관적건강상태(1~5)	Log Odds	S.E.
주거형태(비안정주거=1)	-0.295	0.347
기숙사여부(예=1)	0.184	0.316
성별(여성=1)	-0.605***	0.177
월평균소득(log)	0.037	0.156
어머니학력	0.045	0.033
부모거주지역		
서울(=기준)		
광역시	0.756*	0.323
중소도시	0.482	0.299
읍면지역	0.315	0.351
대학소재지(불일치=1)	-0.366	0.227
가정생활만족도	0.043	0.099
부모와 함께 한 시간	0.043	0.102
동거인 유무(예=1)	0.201	0.423
생활비지원정도	-0.004	0.006
이전 학업성취도	-0.084	0.065

<표 계속>

주관적건강상태(1~5)	Log Odds	S.E.
휴학유무(예=1)	-0.143	0.450
음주량	0.041	0.076
흡연유무(예=1)	0.094	0.260
이전 건강상태	1.029***	0.111
/cut1	-2.986	1.538
/cut2	-0.236	1.258
/cut3	2.589	1.250
/cut4	5.916	1.273
Pseudo R2		0.111
N		611

주:***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주관적 건강상태와는 달리 주거형태와 신체질량지수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달리 비안정 주거형태는 BMI를 약 0.795점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영양실조나 저체중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BMI의 증가는 비만과 관련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BMI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취와 하숙의 형태와는 다르게 기숙사에서는 식단 조절 및 식생활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주거형태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경우 BMI가 낮게 측정되었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BMI가 높아졌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비만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경향점수 매칭 후 주거형태와 신체질량지수(BMI)의 관계

BMI	Coef.	S.E.
상수	0.546	0.953
주거형태(비안정주거=1)	0.795***	0.247
기숙사여부(예=1)	0.323	0.228
성별(여성=1)	-0.402**	0.131
월평균소득(log)	0.375***	0.111
어머니학력	-0.063**	0.024
부모거주지역		
서울(=기준)		
광역시	-0.150	0.240
중소도시	0.525*	0.223
읍면지역	0.281	0.260
대학소재지(불일치=1)	0.247	0.165
가정생활만족도	-0.107	0.071
부모와 함께 한 시간	0.079	0.074
동거인 유무(예=1)	-0.699*	0.298
생활비지원정도	0.002	0.005
이전 학업성취도	0.007	0.048
휴학유무(예=1)	0.570	0.307
음주량	0.015	0.055

<표 계속>

BMI	Coef.	S.E.
흡연유무(예=1)	-0.164	0.186
이전 BMI	0.895***	0.021
Adj.R2		0.784
N		598

주: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V. 요약 및 결론

대학생의 주거빈곤 실태가 언론에서 조명되고는 있으나 불안정 주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표본을 통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아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주거형태가 건강적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의 경우 지역변수가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취, 하숙이나 기숙사 거주와 같이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불안정 주거를 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모와 동거하며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과는 달리 주거 문제와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게 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활비와 관련된 주거형태의 불안정성은 건강과 같은 복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주거형태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불안정 주거의 경우가 선택적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지역변수가 불안정 주거를 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선택적 편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경향점수 매칭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불안정 주거를 택한 학생들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질량지수(BM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가 비만과 비만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와 기숙사에 살면서 부모의 관심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건강 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넷째, 불안정 주거 중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측한 것과는 달리 기숙사에 사는 것이 BMI를 낮추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대학 다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대학 체제를 도입할 때 이러한 대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시스템을 식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 박재홍(2012). 대학생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숙사 확충방안.
- 김양분 외(2013).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고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3), 127~153.
- 변수용, 김경근(2010).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이복임 외(2012).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건강행위 간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77~84.
- 최은영(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 대학내일 20대 연구소(2015.01.19).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4332
- Dehejia, H.R. and S. Wahba(2002). Propensity score-matching methods for nonexperimental causal stud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1), 151~61.
- Mirowsky, J. & Ross, C. E.(2003). Education, Social Status, and Health. New York, NY: Walter de Gruyter, Inc. Monteiro, C. A., Conde, W. L., Lu
- Morgan, S.L. and C. Winship(2007).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principle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aum, P.R. and D.B. Rubin(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41~55.
- Rosenbaum, P.R. and D.B. Rubin(1985).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American Statistician, 39, 33~38.
- WHO (2004). Appropriate body-mass index for Asian popu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Lancet, 363, 157~163.

❖ Abstract ❖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ce and Health

Haram Jeon (Sungkyunkwa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which college students chose to live out of their home and what results came from their choice of residential types,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Focusing on the students who entered higher education in 2008, this research showed that students who came from small cities or rural area, entered the college remote from their previous residential area, had less time with parents, experienced the living at dormitory in highschool days, and currently participate in club activities are more likely to live out of their home than their counterparts.

In the analytical proc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type and healt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used to eliminate selection bias in residential type. Even after considering selection bias, residential type was closely related to health, especially to Body Mass Index (BMI) among college students. Living out of home increased BMI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 supported national concern on the students who have no choice but to live out of home with lacking parental support on their healthy behaviors, such as diet style.

Key words: KEEP, Residential type, health, BMI, propensity score matching